

# 지역이탈의 악순환: 출생지의 경제 환경과 청년 취업자의 지역이탈\*

허원창\*\* · 송현서\*\*\* · 전보강\*\*\*\*

## The Vicious Cycle of Regional Exodus: Examining the Economic Environment of Birthplace and the Out-migration of Young Individuals\*

Wonchang Hur\*\* · Song Hyun Seo\*\*\* · Bogang Jun\*\*\*\*

**국문요약** 지역이탈은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역 특성과 경제 여건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 요인이 같을 때,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라 청년의 지역이탈 양상과 정도가 다른지 분석하였다. 시·군·구 단위의 분석 결과 청년 이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준이 높고, 경제 규모와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심각하였다. 특히 의료시설을 제외한 상업·교육·문화시설은 청년 이탈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수도권 취업자와 지역 취업자 간에는 유의한 임금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 경제 악화와 청년 이탈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년 이탈, 지역 경제, 어메니티, 임금 효과

**Abstract:** Regional migration is a problem faced by all non-metropolitan areas in Korea, but the extent of migration varies depending on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xtent of youth migr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ir birthplaces. The results showed that youth migration was more severe in areas suffering from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problems. The smaller the economy and the weaker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region, the more severe the youth migration. In particular, commercial,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except for medical facilities, were not able to curb youth migr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wage gap between those employ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ose employed in the regions, regardless of their origin. This suggests that non-metropolitan areas are caught in a vicious cycle of regional economic deterioration and youth migration.

**Key Words:** youth migration, regional economy, amenity, wage effect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과 2022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22R1A5A7033499)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wchur@inha.ac.kr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학사과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1018gustj@naver.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bogang.jun@inha.ac.kr

## 1. 서론

청년층의 지역이탈은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10년 중반 이후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순유출을 겪고 있으며, 2015년~2021년 동안 수도권 유입 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은 78.5%에 달했다(이상욱 외, 2019; 정민수 외, 2023).

거주지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향과 함께 거주지의 지역적 여건에 의해서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지역이탈을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현상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되며, 인적 요인과 출신 지역의 여건에 따른 차이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계의 주류 연구는 청년의 지역이탈을 임금 격차로 인한 집단적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특정 비수도권 지역의 인적자본 유출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이탈의 정도와 양상이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술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이탈은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지역의 특성과 경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지역마다 그 정도는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인적 요인이 같을 때 혹은 적절히 통제되었을 때,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한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지역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출생 청년들을 표본으로 하여 출생 지역의 경제 여건과 어머니 수준에 따른 이탈 성향과 근로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다. 출생지의 경제 여건은 시·군·구를 분석 단위로 하여 인구, 평균연령, 지역 총생산,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고, 어머니 수준은 지역 내 상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에 대해 인구 당 시설 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이탈을 촉진하는 지역 요인과 억제하는 지역 요인을 각각 식별하고자 하였다. 만일 지역이탈을 악화하는 요인이 지역이탈의 결과로 더 악화된다면 청년의 지역이탈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청년 이탈을 완화하는 요인이 청년 이탈의 감소로 인하여 그 효과가 더 강해진다면 청년 이탈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기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토의한다. 3장에서는 연구자료, 변수 측정, 기술통계 및 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4장에서 분석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추후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접근방법은 학문적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분류 방법도 서로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경제학적 접근과 사회지리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Oeberg, 1995; 이희연, 2008; de Haas, 2021).

경제학적 접근은 임금 격차,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 인적자본의 비용과 편익, 소비 동기 등의 요인을 토대로 미시적, 거시적, 제도적 관점에서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특히 경제학적 접근은 인구이동을 노동력의 이동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주된 분석 주제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은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자본은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 투자되어 지역 간 노동시장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는 평형(equilibrium)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Partridge & Rickman, 1997; McCann, 2013). 임금 격차와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유경문, 1991; 김성태·장정호, 1997; 김현아, 2008; 김기승·정민수, 2013; 이상호, 2010; 강동우, 2016; 강동우 외, 2017; 이상욱 외, 2019; 조동훈, 2020).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취업한 지방대 졸업자는 지방에 잔류한 경우에 비해 임금이 더 높았다. 특히,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높은 보상적 임금 상승이 있음이 관찰되었다(류장수, 2015). 즉 경제학적 접근에 따르면 임금 격차

는 청년층의 이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지리학에서는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지역의 특성과 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이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지역개발, 정주 여건, 어메니티, 생활양식 변화 등이 고려된다. 이 중 정주여건은 주거, 교육, 가족, 교통, 문화 등 사회 문화적 환경과 경제 규모, 조세 재정, 정책 혜택 등의 경제적 여건을 포괄한 것으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된다(Glaeser, 2009). 정주 여건에 대한 국내연구는 임금 효과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여건이나 부동산 등이 일부 다루어졌다(홍성호·유수영, 2012; 이정희 외, 2017). 자녀 교육을 위한 가구의 이동, 전세 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이탈 경향 등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강동우, 2016; 이찬영·이흥후, 2016; 이찬영, 2018). 일부 지역 변수가 고려된 연구들도 있지만, 청년의 지역이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임금 격차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에 초점을 두고 지역 경제 환경이나 의료,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지역 환경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기존 연구들은 국내 인구이동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였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의 지역적 요인과 인적 요인을 구분하고 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즉 인적 특성에 따른 선별성의 영향과 지역 요인의 영향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대졸자는 서울 소재 대졸자와 비교하면 임금이 낮았지만, 임금 격차의 상당한 부분은 학력(예, 수능점수) 차이로 설명되었다(김희삼, 2010). 이 경우 임금 격차가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과 개인 역량의 차이 중 어디서 비롯되는지 모호하다. 반대로 전출 지역과 전입 지역의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경우 인적 요인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당수의 국내연구는 특정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산(류장수, 2005; 윤윤규 외, 2013; 김기승·정민수, 2013; 류장수, 2015), 대구-경북(김용현, 2012; 박우식 외, 2011), 울산(이상욱, 2019), 광주(홍성우, 2016), 전남(오은열·문채,

2016), 인천(오준병 외, 2019), 제주(권상철, 2003)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이탈 성향이 높은 인적 자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특정 지역에 표본이 국한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연구마다 지역구분의 단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지역이탈의 기준과 정의가 조금씩 다른 문제도 있다. 정주 여건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통 거주지역의 변화를 지역이탈로 정의하지만, 지역 인재 유출을 다루는 몇몇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역을 지역이탈의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후자의 경우 동일지역 내의 이동(예를 들어, 경남지역 대졸자가 부산에서 취업한 경우)은 이탈로 분류되지 않는다. 특히 대학 소재지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탈의 정의가 모호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소재 고교졸업자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에서 취업한 경우나, 수도권 출생자가 지역 국립대에서 유학한 후 수도권에 취업한 경우가 그렇다. 몇몇 연구는 이주 이동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거나(심재현·김의준, 2012; 조동훈, 2020), 대학 진학과 취업을 따로 분석하였지만(류장수, 2015; 강동우 외, 2017), 이탈의 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각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학력, 생산성 등 인적자본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이탈 경향과 상관성이 높다고 분석되었으나(류장수, 2015; 이상욱 외, 2019; Granato et al., 2015; 홍성우, 2016), 사용된 변수(학점, 자격증, 어학, 부모 학력 등)나 표본에 따라 효과가 다르거나 유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김기승·정민수, 2013).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일부 상반된 결과가 발견되었다. 대도시 간 인구이동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이동은 임금만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으나(조동훈, 20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쇼핑 시설, 교육 기회, 주택 가격 상승률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욱 외, 2019). <표 1>은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연구를 요약하였다.

〈표 1〉 거주 이동에 대한 주요 연구

문헌	표본	연구의 관점	주요 이탈 요인 및 효과	데이터
권상철 (2003)	제주	지역 간 인구이동 (임금 및 지역경제요인)	학업 및 임금근로 목적, 전문직, 기능직, 대졸 고학력자	인구주택 총조사(2000)
김희삼 (2010)	전국	노동시장성격차이 (교육격차)	지방대 졸업자는 약16% 낮은 임금을 받으며 약 2/3는 학력 차이로 설명	GOMS (2006)
이상호 (2010)	전국	지역 간 인구이동 (임금 및 지역경제요인)	연령(-), 학력(+); 지역 간 이동 고학력자 6~7% 임금 편익	한국노동패널 ('98~'07)
김용현 (2012)	대구 경북	대졸자취업지역이동 (인적요인)	연령(-), 학점(-) 등 임금 및 고용 여건에 초점	GOMS (2008)
심재현 외 (2012)	전국	대졸자취업지역이동 (인적요인)	이동 유형별 효과(성별, 연령, 성적, 전공 등 인적 특성과 기업특성)가 다름	GOMS (2010)
류장수 (2005)	부산 (전국)	대졸자취업지역이동 (인적요인)	여성, 학력, 부모 학력 및 소득, 특목고 출신, 자격증(-)	GOMS (2012)
홍성우 (2016)	광주	대졸자취업지역이동 (인적요인)	남성, 학력, 자격증, 4년제, 이공계 등	GOMS (2013)
강동우 (2016)	전국	지역 간 인구이동 (임금 및 지역경제요인)	기대임금, 고용률, 어메니티 효과; 학력 및 연령에 따라 효과가 다름	인구주택 총조사 (2010)
강동우 외 (2017)	전국	대졸자취업지역이동 (임금효과)	대졸자의 처음 두 번째 직장이행에서 지리적 이동의 유의한 임금효과 실증	GOMS ('09-'10)
오준병 외 (2019)	인천 (전국)	출생지역 외취업 (인적+지역적 요인)	출생 및 고교소재지, 부모 학력 및 소득, 전공 등; 기계 학습 이용	GOMS (2018)
조동훈 (2020)	전국	대졸자취업지역이동 (임금효과)	고교, 대학, 직장 모두 비수도권인 유형의 임금이 가장 낮음	GOMS (2016)
이상욱 외 (2019)	울산	지역 간 인구이동 (인적+ 지역적 요인)	남성, 학력, 연령(-), 경력(-)	인구주택 총조사(2014)

### 3. 연구 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세 가지 원천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표본 및 응답자의 인적 특성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 Mobility Survey: GOMS)」를 사용하였다. GOMS는 졸업 시점이 같은 대졸자들에 대한 코호트 조사로 매년 졸업 이듬해 9월부터 3개월간 수행된다. 조사는 경제활동, 구직활동, 인턴 경험, 학업 성과, 어학연수, 취업 및 시험 준비, 직업 교육 및 훈련 등 17개 영역, 50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GOMS는 응답자가 동질적이고 취업 관련 방대한 문항을 제공하여

대졸 청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었다(김덕호, 2020). 특히 응답자의 출생 및 성장 단계별 지역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응답자의 출생 및 성장 지역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통계」 자료로부터 수집하였다.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 축적된 196종 사업장의 인허가 일자, 영업상태, 폐업 일자 등을 일 단위로 갱신하여 제공하는 방대한 자료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병원, 음식점, 유통매장, 사설학원, 학교 등의 개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였다. 「e-지방통계」는 인구, 소득, 건강, 교육, 고용,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역별 통계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한 변수를

측정하는 데 활용하였다.

## 2) 연구 변수 및 표본 특성

연구 표본은 취업 상태인 비수도권 출생자 중 출생지와 고교소재지가 같은 응답자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출생자, 출생 지역과 성장 지역이 다른 경우, 그리고 미취업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로 한정하여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은 제외하였다. 연구 표본은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풀링(pooling)하였다.<sup>1)</sup>

〈표 2〉는 연구 변수의 기술 통계표이다.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취업 지역이 수도권 지역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따라서 지방고교 졸업자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다시 수도권에 취업하였으면 지역이탈로 분류된다. 이는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이탈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출생 지역은 응답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지역 간 비교에서 선택편향을 제거하는 데 유리하다.

독립변수는 지역이탈의 인적 요인과 지역 요인으로 구분된다. 인적 요인으로 인구통계학 변수, 대학 유형, 전공, 학업 성과, 취업 준비 수준 등을 사용하였다. 학업 성과는 경우 졸업 평점, 어학연수 횟수, 자격증 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변수로 사용하였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 명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최대	비고
종속변수 응답자 특성 N=10,189 (2개년도 pooling)	지역이탈	수도권 취업 33.6%, 비수도권 취업 66.4%				-
	근로소득	242.25	81.34	230	0~1,500	월 소득(만 원)
	나이	26.66	2.25	27	21~40	-
	졸업평점	3.62	0.42	3.7	1.7~4.5	-
	성별	여성 40.8%, 남성 59.2%				여성 1, 남성 0
	대학유형	4년제 81.1%, 기타 18.9%				4년제 1, 기타 0
	전공계열	공학 33.0%, 사회 19.3%, 자연 13.1%, 의학 9.9%, 인문 9.0%, 교육 7.8%, 예체능 7.7%				-
	취업준비	취업준비프로그램 56.2% 교육훈련 30.8%, 자격증 62.7%, 어학연수 10.6%,				참여(보유) 1, 미참여(미보유) 0
	부모학력	중졸이하 8.6%, 고졸 41.6%, 대졸 42.4%, 석·박사 7.2%				아버지의 학력 기준
	부모소득	1(~2백만 원) 12.8%, 2(~4백만 원) 34.5% 3(~7백만 원) 27.5%, 4(7백만 원~) 15.0%				월 소득 기준 4개 그룹
부모자산	1(~1.5억) 12.3%, 2(~3억) 18.0%, 3(~5억) 30.4%, 4(~10억) 22.8%, 5(10억~) 16.2%				5개 그룹	
응답자의 출생지역 특성 N=302 (2개년도 별 151개 시·군·구)	지역인구	320.7	215.3	280.6	9.8~1,054	단위: 천 명
	평균연령	42.59	3.51	42.1	36.1~56.4	-
	GRDP	10.55	9.46	7.17	0.28~38.8	단위: 조 원
	재정자립도	23.12	9.70	21.1	4.1~58.0	단위: %
	의료시설	199.6	99.6	173.0	38~690	병원, 의원, 치과, 약국 등
	상업시설	1,849.9	1,101.3	1,510.5	347~6,970	편의점, 음식점, 마트, 숙박업체 등
	교육시설	192.3	59.6	183.9	60.2~405.1	학원,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문화시설	44.4	19.9	38.8	9.4~167.4	영화관, 게임방, 문화센터 등	

다. 어학 능력의 경우 어학 시험 성적을 고려하였으나 시험 종류가 달라 비교가 어렵거나 점수가 누락된 표본이 많았다.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이 없거나 혹은 매우 많은 자격증을 가진 표본이 존재하였다. 자격증 개수의 양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범주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실적과 취업 준비 정도는 설문에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참여 실적을 합산하였다. 여기에는 청년 취업인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독립변수에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을 포함하여 인적 요인 변수의 내생적 효과를 제거하였다. 학력은 아버지의 학력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석·박사로 구분하였다. 경제력은 소득과 자산으로 나누어 각각 4개 구간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이탈의 지역 요인으로는 경제 여건과 어메니티(amenity)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하였다. GOMS 자료에 기록된 응답자의 출생지 시·군·구 코드를 이용하여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와 e-지방통계의 지역 관련 변수와 결합하였다. 경제 변수로는 인구, 평균연령, 지역 총생산(GRDP), 재정자립도를 사용하였고 어메니티 변수는 인구 10만 명당 의료, 상업, 교육, 문화 분야의 시설 수를 계산하였다. 부록1에는 광역시도별 경제 변수와 어메니티 변수의 평균값 및 수도권 이탈 비율을 제시하였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전국 비수도권 출생 대졸 청년들의 수도권 취업 결정요인과 그로 인한 임금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연구 모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 모형은 수도권 이탈 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회귀식(1)과 같다.

$$P(c_i=1|X_i, Z_i) = \sigma(\beta X_i + \gamma Z_i) \quad (1)$$

식에서  $c_i$ 는 수도권 이탈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X_i=(1, x_i^1, \dots, x_i^k)$ 는 인적 특성 벡터,  $Z_i=(z_i^1, \dots, z_i^l)$ 는 출생지의 지역 특성 벡터를 나타내며, 이항 로지스

틱 회귀모형으로 이탈 확률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 내에서 취업 지역이탈 성향이 높은 인적 특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동시에 같은 인적 특성이 출생 및 성장 지역의 특성에 의해 변화하는지 알아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모형은 수도권 이탈의 임금 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으로 식(2)와 같다.

$$\log(w_i) = \delta c_i + \lambda X_i + \mu Z_i + \varepsilon_i \quad (2)$$

식(2)에서  $w_i$ 는 근로 임금을 나타내며, 식(1)의 독립변수에 이탈 여부 더미변수  $c_i$ 가 추가된 회귀모형으로 최소제곱법(OLS)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 회귀모형은 인적 특성과 지역 특성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수도권 취업이 임금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추정한다.

## 4. 분석 결과

### 1) 수도권 이탈 성향

〈표 3〉은 회귀식(1)을 추정하여 인적 특성과 출생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른 이탈 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4)는 회귀식에 사용된 지역 경제 변수에 따른 구분이며 각각 인구, 연령, 지역 총생산, 재정자립도가 사용되었다.

#### (1) 인적 특성과 학업 성과

〈표 3〉의 패널 C에 의하면, 나이, 성별, 전공, 대학 유형에 따라 이탈 성향이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먼저, 나이가 많을수록 이탈 성향이 높았다.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통 나이와 이탈 성향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졸업 시점이 모두 같으므로 나이가 많은 응답자는 휴학, 어학연수, 인턴, 취업 준비 등으로 졸업이 늦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나이와 이탈 성향의 관계는 이후 살펴볼 취업 준비 수준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은 여성의 수도권 이탈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이탈 성향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이탈 성향이 2년제 대졸자보다 더 높았으며, 전공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 났다. 특히 예체능과 인문학 전공자의 이탈 성향이 가장 높았다. 예체능과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전공 분야임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 개선이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이 이탈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패널 B의 학업 성과와 취업 준비 정도의 경우 취업 준비 수준만이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졸업 평점과 어학연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격증 수와 교육훈련 횟수는 오히려 잔류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가 기존 연구에서도 발견된다(예, 류장수, 2005). 이는 자격증이나 교육훈련 실적이 역설적으로 노동 경쟁력의 취약함으로 인식되었거나, 혹은 수도권 기업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내 기업의 취업에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면 취업 준비 정도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 수도권 취업자들의 취업 준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표 3〉의 패널 D에 의하면, 고학력 부모의 자녀일수록 수도권 이탈 성향이 높다.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 대졸, 석·박사로 부모의 학력이 상승할수록 자식의 이탈 성향은 점점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지역이탈 성향 간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발견되었다. 먼저 소득이 가장 낮은 1그룹을 기준으로 1그룹과 4그룹의 이탈 성향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지만, 2그룹에서 3그룹으로 소득이 상승할수록 이탈 성향은 유의하게 낮아졌다. 자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자산이 가장 낮은 1그룹을 기준으로 5그룹의 이탈 성향이 가장 높았던 반면, 3그룹과 4그룹의 이탈 성향이 가장 낮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는 자녀의 취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어려울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그룹은 모두 높은 수도권 이탈 성향을 보이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를 것

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한 뚜렷한 이론적 논거를 찾기는 어려워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지역의 경제 여건

〈표 3〉의 패널 A는 출생 시·군·구의 경제 여건과 어메니티 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적 특성, 학업 성과, 가정환경이 비슷하더라도 출생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역이탈 성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나 GRDP가 1% 증가하면 지역이탈 확률은 승산비 기준 0.816과 0.870으로 감소하며 재정자립도는 10% 증가 시 0.870으로 감소한다. 또한 평균연령이 5세 감소할 때 승산비는 1.234배로 증가한다(각 계수의 승산비는 부록2 참조). 즉 경제 규모가 작고(인구 및 지역 총생산 기준), 인구가 고령화되었으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 성향이 더 높았다.

어메니티의 경우 의료시설만이 유의한 이탈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문화시설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상업시설과 교육시설의 경우 오히려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은 어렵지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인구 당 상업시설의 수는 대부분 음식점이 많은 관광도시가 높았다. 가령, 김해, 거제, 양양, 울릉, 평창, 정선 등이 10위 이내에 포함되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이탈이 심각한 지역이다. 학교, 도서관 등 교육시설은 지자체의 공공시설로 인구가 적을수록 인구 당 교육시설의 수는 높아질 수 있다. 어메니티 변수는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시설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구가 적을수록 인구 당 시설 수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즉 인구 당 상업시설과 교육시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임을 의미하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어메니티 수준과 관계없이 지역이탈 성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외는 의료시설이다. 교육시설의 경우 필수적 공공시설의 성격이 있고, 상업시설의 경우 관광객 등의 외부인구의 수요로 유지될 수 있지만 의료시설의 경우 지역 인구가 부족하면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

〈표 3〉 지역이탈 확률의 추정 결과(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종속변수: 지역이탈(수도권 취업) 확률								
	(1)-Log(인구)		(2)-평균연령		(3)-Log(GRDP)		(4)-재정자립도	
변수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A. 출생지 경제 여건								
Log(인구)	-0.20***	0.04						
평균연령			0.04***	0.01				
Log(GRDP)					-0.15***	0.03		
재정자립도							-0.01***	0.003
의료시설	-0.43***	0.09	-0.50***	0.09	-0.53***	0.09	-0.50***	0.09
상업시설	0.24***	0.09	0.31***	0.09	0.36***	0.09	0.49***	0.09
교육시설	0.32***	0.09	0.29***	0.09	0.27***	0.09	0.24***	0.09
문화시설	-0.06	0.09	0.02	0.09	-0.03	0.09	-0.06	0.09
B. 학업 성과								
졸업평점	0.06	0.05	0.06	0.05	0.06	0.05	0.06	0.05
취업준비	0.38***	0.06	0.37***	0.06	0.37***	0.06	0.38***	0.06
교육훈련	-0.11**	0.05	-0.11**	0.05	-0.11**	0.05	-0.10**	0.05
자격증	-0.44***	0.05	-0.43***	0.05	-0.44***	0.05	-0.44***	0.05
여학연수	-0.04	0.07	-0.04	0.07	-0.04	0.07	-0.04	0.07
C. 인적 특성								
나이	0.04***	0.01	0.04***	0.01	0.04***	0.01	0.04***	0.01
여성	0.21***	0.05	0.22***	0.05	0.21***	0.05	0.22***	0.05
4년제	0.51***	0.07	0.52***	0.07	0.51***	0.07	0.51***	0.07
전공_공학	0.25***	0.10	0.26***	0.10	0.26***	0.10	0.26***	0.10
전공_사회	0.24**	0.10	0.24**	0.10	0.25**	0.10	0.24**	0.10
전공_예체	0.88***	0.11	0.89***	0.11	0.88***	0.11	0.88***	0.11
전공_의약	0.28***	0.11	0.26***	0.11	0.27***	0.11	0.28***	0.11
전공_인문	0.38***	0.11	0.38***	0.11	0.38***	0.11	0.38***	0.11
전공_자연	0.01	0.10	0.01	0.10	0.02	0.10	0.02	0.10
D.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부_고졸	0.19**	0.09	0.19**	0.09	0.19**	0.09	0.19**	0.09
부_대졸	0.53***	0.09	0.52***	0.09	0.52***	0.09	0.52***	0.09
부_석사	0.94***	0.11	0.93***	0.11	0.93***	0.11	0.92***	0.11
부모소득-2	-0.16**	0.07	-0.16**	0.07	-0.17**	0.07	-0.17**	0.07
부모소득-3	-0.22***	0.07	-0.22***	0.07	-0.22***	0.07	-0.23***	0.07
부모소득-4	-0.12	0.09	-0.12	0.09	-0.12	0.09	-0.12	0.09
부모자산-2	0.001	0.08	0.01	0.08	0.01	0.08	0.01	0.08
부모자산-3	-0.31***	0.08	-0.30***	0.08	-0.30***	0.08	-0.30***	0.08
부모자산-4	-0.20**	0.08	-0.19**	0.08	-0.19**	0.08	-0.19**	0.08
부모자산-5	0.13	0.09	0.14	0.09	0.14	0.09	0.14	0.09
연도_2018	0.03	0.04	0.01	0.04	0.03	0.04	0.02	0.04
Intercept	-1.30*	0.71	-5.89***	0.79	-1.64**	0.73	-4.60***	0.40
L.L.	-6,152		-6,154		-6,156		-6,155	
pseudo R <sup>2</sup>	0.0533		0.0531		0.0527		0.0529	

\*\*\*  $p < 0.01$ , \*\*  $p < 0.05$ , \*  $p < 0.1$



로 어메니티의 결과는 지역 내 인구 규모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 별개로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의료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의 확충으로는 청년층의 이탈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처럼 출생 지역의 경제 여건이 취약할수록 수도권 이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대졸자의 수도권 이탈이 악순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청년층의 이탈 성향이 높아질수록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재정건전성 악화, GRDP 축소가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 성향은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2) 수도권 이탈의 임금효과

〈표 4〉는 수도권 취업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회귀식(2)의 추정 결과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변수에 따라 추정 결과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모두 같을 때, 수도권 취업자의 임금은 비수도권 취업자보다 약 8.0% 높아 유의한 임금 상승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 성향과 정(+)의 관계였던 인적 요인 중 일부는 임금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이탈 성향이 높았던 인문학과 예체능 전공자들은 다른 전공자에 비해 임금이 유의하게 낮았다. 여성 역시 수도권 이탈 성향이 높았으나 임금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표적인 고용 취약 계층으로 임금에 앞서 취업 기회를 얻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수도권 이탈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임금 증가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은 자녀의 임금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흔히 지능이나 학습 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므로, 이는 타고난 역량에 따른 임금 차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탈 성향과 무관하거나 부(-)의 관계가 있었던

졸업 평점, 어학연수 경험, 취업 준비, 교육훈련, 자격증 등의 학업 성과는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생지의 어메니티 수준은 임금과 무관하였으나 경제 여건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탈 성향과의 관계에 비하여 그 강도는 낮았으나, 경제 여건이 취약한 지역 출생자들은, 수도권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경제 여건이 양호한 지역 출생자들보다 임금이 유의하게 낮았다. 출생지는 무작위로 결정된다는 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인적 요인들이 모두 통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출생 지역에 따른 임금차별이 없다는 가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결과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과로부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출생자들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인적 특성을 가지며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라 관측하기 어려운 인적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의한 노동성과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5〉에서는 출생권역에 따라 수도권 이탈의 임금 효과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또한 수도권은 아니지만 출생권역을 이탈하여 취업한 경우의 임금 차이도 비교하였다. 모형 (1)-(2)는 모든 출생권역의 표본을 포함하였으며, 이후 각각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으로 구분하여 해당 권역의 출생자들을 표본으로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권역에 따른 효과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출생 지역을 이탈하여 취업하였을 때, 취업 지역과 무관하게 유의미한 임금의 상승효과를 얻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취업은 다른 권역으로 취업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더 높은 임금 상승효과를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지역이탈과 근로소득(OLS)

종속변수: log(근로소득)								
	(1)-Log(인구)		(2)-평균연령		(3)-Log(GRDP)		(4)-재정자립도	
변수	$\beta$	S.E.	$\beta$	S.E.	$\beta$	S.E.	$\beta$	S.E.
이탈(수도권)	0.08***	0.01	0.08***	0.01	0.08***	0.01	0.08***	0.01
A. 출생지 경제 여건								
log(인구)	0.01*	0.01						
평균연령			-0.001	0.001				
log(GRDP)					0.01	0.004		
재정자립도							0.0001	0.0004
의료시설	-0.004	0.01	-0.001	0.01	0.0003	0.01	-0.0004	0.01
상업시설	-0.01	0.01	-0.02	0.01	-0.02	0.01	-0.02*	0.01
교육시설	-0.01	0.01	-0.01	0.01	-0.005	0.01	-0.01	0.01
문화시설	0.003	0.01	0.002	0.01	0.003	0.01	0.003	0.01
B. 학업 성과								
졸업평점	0.04***	0.01	0.04***	0.01	0.04***	0.01	0.04***	0.01
취업준비	0.09***	0.01	0.09***	0.01	0.09***	0.01	0.09***	0.01
교육훈련	0.11***	0.01	0.11***	0.01	0.11***	0.01	0.11***	0.01
자격증	0.03***	0.01	0.03***	0.01	0.03***	0.01	0.03***	0.01
어학연수	0.03***	0.01	0.03***	0.01	0.03***	0.01	0.03***	0.01
C. 인적 특성								
나이	0.03***	0.002	0.03***	0.002	0.03***	0.002	0.03***	0.002
여성	-0.11***	0.01	-0.11***	0.01	-0.11***	0.01	-0.11***	0.01
4년제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전공_공학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전공_사회	-0.03***	0.01	-0.03***	0.01	-0.03***	0.01	-0.03**	0.01
전공_예체	-0.14***	0.02	-0.14***	0.02	-0.14***	0.02	-0.14***	0.02
전공_의약	0.07***	0.01	0.07***	0.01	0.07***	0.01	0.08***	0.01
전공_인문	-0.09***	0.02	-0.09***	0.02	-0.09***	0.02	-0.09***	0.02
전공_자연	-0.05***	0.01	-0.05***	0.01	-0.05***	0.01	-0.05***	0.01
D.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부_고졸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1
부_대졸	0.04***	0.01	0.04***	0.01	0.04***	0.01	0.04***	0.01
부_석사	0.04***	0.02	0.04***	0.02	0.04***	0.02	0.04***	0.02
부모소득-2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1
부모소득-3	0.03***	0.01	0.03***	0.01	0.03***	0.01	0.03***	0.01
부모소득-4	0.04***	0.01	0.04***	0.01	0.04***	0.01	0.04***	0.01
부모자산-2	0.03***	0.01	0.03***	0.01	0.03***	0.01	0.03***	0.01
부모자산-3	0.06***	0.01	0.06***	0.01	0.06***	0.01	0.06***	0.01
부모자산-4	0.07***	0.01	0.07***	0.01	0.07***	0.01	0.07***	0.01
부모자산-5	0.12***	0.01	0.12***	0.01	0.12***	0.01	0.12***	0.01
연도_2018	0.04***	0.01	0.04***	0.01	0.03***	0.01	0.04***	0.01
Intercept	4.31***	0.10	4.49***	0.11	4.35***	0.10	4.46***	0.09
Adj. R <sup>2</sup>	0.210		0.210		0.210		0.210	
F statistic	88,340***		88,258***		88,254***		88,289***	

\*\*\*  $p < 0.01$ , \*\*  $p < 0.05$ , \*  $p < 0.1$

〈표 5〉 취업 지역이탈과 근로소득(OLS)

종속변수: 근로소득(OLS)										
변수	전국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1)	(2)	(3)	(4)	(5)	(6)	(7)	(8)	(9)	(10)
이탈 (수도권)		0.03*** (0.01)		0.07* (0.04)		0.03** (0.02)		0.05** (0.02)		-0.01 (0.03)
이탈 (권역)	0.08*** (0.01)	0.06*** (0.01)	0.09*** (0.03)	0.03 (0.04)	0.09*** (0.01)	0.07*** (0.01)	0.08*** (0.01)	0.05*** (0.02)	0.04*** (0.02)	0.05* (0.03)
개인 특성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지역 특성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관측 수	10,184		614		5,745		2,104		1,721	
Adj. R <sup>2</sup>	0.212	0.213	0.195	0.198	0.228	0.229	0.208	0.210	0.177	0.177

\*\*\*  $p < 0.01$ , \*\*  $p < 0.05$ , \*  $p < 0.1$

##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이 같을 때, 출생지의 경제 여건이 취약할수록 청년들의 지역이탈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이탈 성향이 더 높았으며, 경제 규모가 작고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청년 이탈이 더 심각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의료 시설만이 유의미한 이탈 억제 효과가 있었을 뿐, 상업, 교육, 문화시설은 이탈 억제와 무관하였다. 또한, 인적 요인이 같을 때, 수도권 취업자와 지역 취업자 간에 유의한 임금 격차가 발견되었다. 이 격차는 출신 지역과 무관하여, 모든 비수도권 지역 노동시장이 수도권에 비하여 더 취약함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온 비수도권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관점을 탈피하고 지역 간 경제 여건에 따른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경제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인재 유출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은, 지역 경제 악화와 청년 이탈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큼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이탈은 학업 성과와 비례하지 않았으며,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도 정비례하지 않았다. 즉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역량과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 가령 일자리가 부족한 전

공이나 취업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지역이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수도권으로의 이탈은 인적자본 수준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 청년층의 선택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청년의 지역이탈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청년의 지역이탈 문제는 지역 경제 여건과 고용 환경이 결합된 악순환의 문제이며, 그에 따라 지역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청년 이탈 억제를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고용 여건 개선, 지역 경제 규모 확대, 재정 확충, 출산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경제 규모가 청년 이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이나 거점 도시의 육성 등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청년층의 유입은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수반되는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어머니의 확충이 청년 이탈 억제를 담보하지 못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 문화·교육·상업시설은 청년 이탈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인구 대비 시설 규모가 충분한 지역에서 이탈 경향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를 토대로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졸업 직후의 청년층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연령층에 일반화하

기 어렵다. 따라서 첫 직장 이후의 지역이동 등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 이탈과 지역소멸의 악순환은 청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나이별 특성에 맞는 연구 모형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이탈 현황과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고려하였던 주거환경 및 어메니티 영향에 대해서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의 질적 특성과 시설 당 규모 등 세부적인 속성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토지가격이나 주거·임대비용 등 시설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의 지역이탈 억제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도 필요하다. 각종 청년지원금, 취업 혜택, 지역개발과 어메니티 투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역이탈의 현황과 요인을 진단하는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됐으나, 청년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이탈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연 실험과 같은 지역 비교가 가능한 연구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수단이 구현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유사 인접 지역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주

1) GOMS는 2020년 이후 조사가 잠정 중단되어 2019년 조사(2018년 졸업자 대상)가 가장 최근 조사이다.

## 참고문헌

- 강동우, 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 강동우·고영우·최충, 2017, 대졸자 직장이동의 지리적 특성과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권상철, 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2), pp.59-73.
- 김기승·정민수, 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2), pp.103-130.
- 김덕호, 2020,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20(1), pp.29-63.
- 김성태·장정호, 1997,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 「국제경제연구」, 3(2), pp.175-197.
- 김용현, 2012, 대졸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11(3), pp.47-62.
- 김현아, 2008, 지역 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응용경제」, 10(2), pp.75-103.
- 김희삼, 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 pp.55-92.
-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pp.1-27.
- 류장수, 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pp.1-23.
- 박우식·박상우·엄창욱, 2011,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4), pp.2247-2274.
- 심재현·김의준, 2012, 대학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이동 요인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5, pp.37-51.
- 오은열·문채, 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9(4), pp.67-92.
- 오준병·허원창·이혜민, 2019, 지역경제조사연구: 기계학습을 이용한 인천지역 노동공급이탈 예측모형, 한국은행 인천본부.
- 유경문, 1991,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경우(1966~1985)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39(1), pp.157-209.
- 윤윤규·이상호·류장수·박성익·조장식·서옥순, 2013, 「부산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고용 정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 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7(1), pp.43-66.

- 이상호, 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26(1), pp.45-70.
- 이정희·이창수·이상경, 2017, 수도권외 도시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전입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3), pp.141-150.
- 이찬영·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pp.143-169.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pp.707-729.
- 이희연, 2008,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국토연자」 2008-3, 국토연구원.
- 정민수·김의정·이현서·홍성주·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한국은행.
- 조동훈, 2020,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노동경제논집」, 43(3), pp.123-148.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pp.1-19.
- 홍성우, 2016, 광주지역 대졸인력 유출현황과 요인분석, 「지역개발연구」, 48(1), pp.1-23.
- Granato, N., Haas, A., Hamann, S., & Niebuhr, A. 2015, The Impact of Skill-specific Migration on Regional Unemployment Disparities in German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5(4), pp.513-539.
- Glaeser, E. L. 2009, The Wealth of Cities: Agglomeration Economies and Spatial Equilibriu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7(4), pp. 983-1028.
- de Haas, H. 2021, A theory of migration: the aspirations -capabilities framework.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9(8). pp.1-35.
- McCann, P. 2013, *Modern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Oeberg, S. 1995, Theories on Interregional Migration: An Overview, Working Paper WP-95-047, 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 Partridge, M. D., & Rickman, D. S. 1997, The Dispersion of US State Unemployment Rates: The Role of Market and Non-market Equilibrium Factors, *Regional Studies*, 31(6), pp.593-606.

게재신청 2023.01.09

심사일자 2024.03.14

게재확정 2024.03.14

주저자: 허원창, 교신저자: 전보강

부록 1. 광역시도별 지역변수 및 수도권 이탈률(시·군·구 평균)

출생 시도	연도	인구	연령	GRDP	재정 자립도	의료	상업	교육	문화	수도권 이탈률
부산 n=16 <sup>1)</sup>	2017	265,886	43.5	5,570	20.4	191.8	1378.9	149.4	33.0	0.29
	2018	266,651	43.9	5,731	20.4	194.2	1438.9	150.4	33.8	0.32
강원 n=18	2017	198,150	43.4	5,286	20.3	152.4	2099.4	171.7	48.4	0.49
	2018	194,607	44.0	5,371	19.4	154.2	2142.3	174.3	49.3	0.48
경남 n=18	2017	396,649	41.7	13,069	31.9	319.0	3405.3	228.8	65.5	0.27
	2018	406,655	41.8	13,619	32.0	326.7	3484.7	228.3	66.0	0.28
경북 n=23	2017	278,424	43.7	13,932	24.2	151.0	1874.9	170.5	37.1	0.37
	2018	293,594	43.9	14,393	25.4	152.9	1850.5	169.4	39.4	0.40
광주 n=5	2017	334,460	40.2	8,173	16.4	182.2	1317.0	266.7	52.4	0.38
	2018	326,474	40.6	8,639	16.1	188.5	1374.6	260.7	56.2	0.31
대구 n=8	2017	404,352	41.8	8,246	20.9	189.9	1365.3	170.0	34.0	0.31
	2018	388,245	42.3	8,298	21.0	204.4	1453.2	183.7	38.1	0.32
대전 n=5	2018	336,055	40.5	9,166	18.4	189.1	1440.9	166.1	41.2	0.35
	2017	340,833	40.0	8,774	18.9	188.9	1447.4	169.4	39.7	0.34
세종 n=1	2017	280,100	36.1	10,632	58.0	118.9	1111.0	149.6	23.2	0.38
	2018	314,126	36.2	11,102	57.1	128.9	1081.7	179.7	24.2	0.38
울산 n=5	2017	257,312	39.7	17,435	27.0	198.8	1436.8	251.6	46.9	0.27
	2018	251,776	40.1	17,048	26.8	195.7	1458.1	253.7	48.6	0.32
전남 n=22	2017	189,528	43.9	8,343	20.2	164.1	1690.0	195.2	45.3	0.38
	2018	182,693	44.8	8,417	19.6	169.5	1724.6	186.3	48.8	0.36
전북 n=14	2017	393,473	42.8	9,437	21.5	191.4	1517.7	260.8	43.0	0.41
	2018	406,843	43.1	10,090	21.7	195.3	1525.3	266.8	44.2	0.42
충남 n=15	2017	268,647	43.1	13,323	25.8	170.4	1710.2	160.4	37.2	0.48
	2018	301,512	43.3	13,965	25.9	175.7	1724.1	166.7	39.9	0.40
충북 n=11	2017	507,031	41.8	19,786	25.7	171.2	1643.1	166.9	38.6	0.44
	2018	573,281	41.8	24,603	27.3	174.7	1619.8	170.0	45.0	0.39

1) 소속 시·군·구 수

2) 인구를 포함한 모든 수치는 광역시도 내 소속 시·군·구 별 수치를 평균한 것임

## 부록2. 지역이탈 확률의 추정결과(odds ratio)

종속변수: 취업 이탈(수도권) 확률								
변수	(1)-Log(인구)		(2)-평균연령		(3)-Log(GRDP)		(4)-재정자립도	
	Exp( $\beta$ )	S.E.	Exp( $\beta$ )	S.E.	Exp( $\beta$ )	S.E.	Exp( $\beta$ )	S.E.
A. 출생지 경제 여건								
Log(인구)	0.817	0.04***						
평균연령			0.0421)	0.01***				
Log(GRDP)					0.861	0.03***		
재정자립도							0.9862)	0.003***
의료시설	0.653	0.09***	0.606	0.09***	0.588	0.09***	0.606	0.09***
상업시설	1.269	0.09***	1.365	0.09***	1.427	0.09***	1.636	0.09***
교육시설	1.375	0.09***	1.336	0.09***	1.312	0.09***	1.273	0.09***
문화시설	0.942	0.09	1.016	0.09	0.969	0.09	0.945	0.09
B. 학업 성과								
졸업평점	1.059	0.05	1.058	0.05	1.058	0.05	1.056	0.05
취업준비	1.455	0.06***	1.455	0.06***	1.454	0.06***	1.459	0.06***
교육훈련	0.899	0.05**	0.895	0.05**	0.898	0.05**	0.901	0.05**
자격증	0.645	0.05***	0.648	0.05***	0.647	0.05***	0.647	0.05***
여학연수	0.965	0.07	0.961	0.07	0.961	0.07	0.962	0.07
C. 인적 특성								
나이	1.045	0.01***	1.044	0.01***	1.045	0.01***	1.045	0.01***
여성	1.238	0.05***	1.241	0.05***	1.239	0.05***	1.244	0.05***
4년제	1.669	0.07***	1.679	0.07***	1.660	0.07***	1.664	0.07***
전공_공학	1.288	0.10***	1.294	0.10***	1.294	0.10***	1.299	0.10***
전공_사회	1.269	0.10**	1.275	0.10**	1.274	0.10**	1.277	0.10**
전공_예체	2.402	0.11***	2.432	0.11***	2.416	0.11***	2.420	0.11***
전공_의약	1.319	0.11***	1.324	0.11***	1.315	0.11***	1.317	0.11***
전공_인문	1.455	0.11***	1.462	0.11***	1.460	0.11***	1.462	0.11***
전공_자연	1.010	0.10	1.014	0.10	1.016	0.10	1.018	0.10
D.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부_고졸	1.213	0.09**	1.214	0.09**	1.210	0.09**	1.211	0.09**
부_대졸	1.701	0.09***	1.687	0.09***	1.681	0.09***	1.676	0.09***
부_석사	2.567	0.11***	2.544	0.11***	2.528	0.11***	2.513	0.11***
부모소득-2	0.848	0.07**	0.851	0.07**	0.847	0.07**	0.847	0.07**
부모소득-3	0.799	0.07***	0.802	0.07***	0.800	0.07***	0.798	0.07***
부모소득-4	0.883	0.09	0.891	0.09	0.888	0.09	0.889	0.09
부모자산-2	1.001	0.08	1.006	0.08	1.008	0.08	1.010	0.08
부모자산-3	0.735	0.08***	0.742	0.08***	0.742	0.08***	0.743	0.08***
부모자산-4	0.820	0.08**	0.824	0.08**	0.824	0.08**	0.827	0.08**
부모자산-5	1.139	0.09	1.146	0.09	1.145	0.09	1.149	0.09